

“ 建築 너 뭣고 ” (2) (饒舌的建築愚論)

■ Essay
Want to Know What is Architecture
by Choi, Chang-K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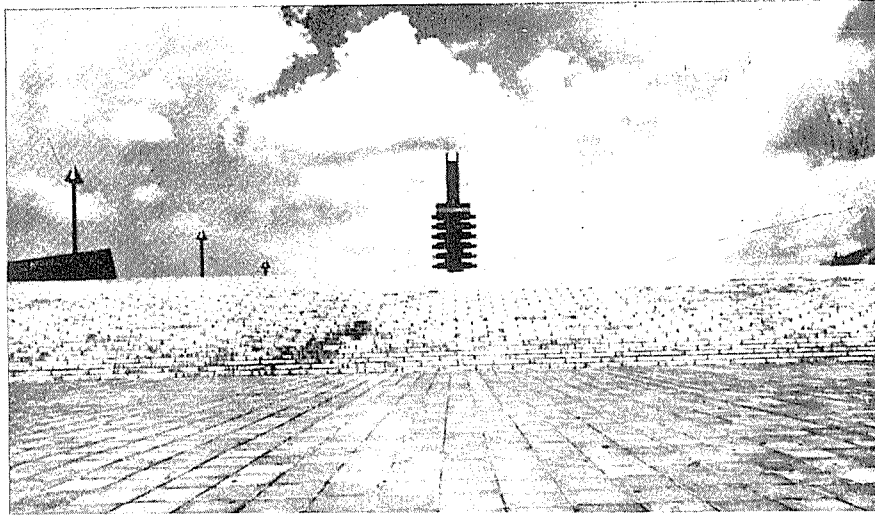


이러한 느낌들은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란 오직 순수하게 학문적이거나 製圖板上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못됨을 알 수가 있다. 더많은 더 복잡한 사회적인 여건들이 얼키고 설켜 있다는 뜻이 되겠지만 학문이 학문다운 주장만을 고집할 그런 것만은 아닌 것만 같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들이 다양하다느니 복잡적이라느니 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고있는 사회적 문제들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취약점들) 교통, 취직, 교육, 주거라는 몇가지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그것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는 누가 연구하고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이다.



崔昌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우린 建築이나 都市計劃이나 造景이나 인간환경의 창조나 인류문화의 구축이니라는 거창한 말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천직으로 삼고 생활(생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냉철히 생각해 보면 얼마만한 수의 인구를 가진, 얼마만한 규모와 시설을 가진 도시가 우리들의 사회에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거나 제안한 일은 없다. 모든 학문의 분야는 세분되고 다양해 가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제시나 모델이나 주장이 없다는 것은 참말로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들은 오직 건축이나 도시계획의 분야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지만 이상하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우린 그동안 무슨 외도들을 하고 있었든가하는 自省마저 하게 된다. 모든 도로의 원리가 1점에서 1점으로의 직선이 최단거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단의 도로는 경제면에서도 투자가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대개의 도로는 직선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느낌들은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란 오직 순수하게 학문적이거나 製圖板上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못됨을 알 수가 있다. 더많은 더 복잡한 사회적인 여건들이 얼키고 설켜 있다는 뜻이 되겠지만 학문이 학문다운 주장만을 고집할 그런 것만은 아닌 것만 같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들이 다양하다느니 복잡적이라느니 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특히 대도시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취약점들) 교통, 취직, 교육, 주거라는 몇가지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그것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는 누가 연구하고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이다. 政治家, 經濟人, 一般消費者, 政府라는 이름의 기구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일까? 이것은 확실히 새로운 社會企劃이라든가 미래학적 분야에서 흥미있는 自由時間 都市構想이나 파괴공학의 개발이나 接觸과 斷絶과 解體와 廢棄라는 새로운 분야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이겠지만 침묵과 고독이나 열연과 의욕적인 활동이라는 상대적인 문제들의 분석이나 더크게는 세계 각지에서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從屬의 關係와 상상못할 새로운 Style 의 종교나 국가해체 도시연맹에서부터 Entropy 이론이란 다각적인 새로운 학문의 출현이야말로 우리들의 건축이나 도시계획의 신차원에 영감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생각이나 요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10평미만의 주택조차도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이때이기는 하지만 우린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上記한 바와 같은 饒舌的인 問題들이 비록 오늘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결부가 되지 않는다해도 믿을 수 없는 관리행정적인 정부에 맡겨 버릴 그럴 것이 될 수도 없다. 솔직한 견해로선 우린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부정하는 것도



芦原義信 東京 Olympic 駒沢公園

아니다. 일맥의 희망 같은 것을 가져 볼 뿐이다. 이 세상에 누가 통치 당하는 것을 원할 사람이 있겠는가. 선량하고 믿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사회라면 정부 따위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들의 권력남용이라든가 근절될 수 없는 부정이나 부패가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내세우는 決定權의 무지가 우릴 실망시키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한결같은 변명이나 명분은 한정되어 있다. 국가와 민족의 변명과 풍요로운 사회건설이란 固定述語이다. 忠誠과 愛國의 깃발은 드높지만 君主(帝王)없는 충성의 의미도 그리하거나 길거리에서 하나같이 자기는 애국자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사회문제는 연장적으로 연속된다. 愛國의 뚜렷한 증거물은 銅雀洞 國立墓地이겠으나 역시 회의는 있다. 국가를 망쳤고 위태롭게 한 사람도 그곳엔 많이 묻혀 있다. 허나 아무리 찾아 보아도 건축가나 도시계획가의 무덤은 발견 못했다. 확실히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은 애국할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일까? 그래도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살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평등이나 공평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과연 인류나 국가나 국민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인가이고, 인류나 문화나 예술이나 기술이라는 의미가 우리사회에 어느정도 이해되고 먹혀 들어가고 있는가이다. 夏至라는 철(계절)이 지났다. 곧 장마가 온다고 한다. 무덥고 불쾌한 일기가 연속될 것이다. 곧 불쾌지수란 활자가 신문지상에 등장할 것이다. 과학적으로야 불쾌한 정도의 어떤 선을 정해 놓고 그 선을 넘는 온도나 습도를 지수로 불쾌지수 얼마나 하겠지만 수많은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기분의 공동분포를 통계적인 Delta 나 수식으로 나타냄에 불과하다. 인간이 얼마마한 극한에서까지 살 수 있을까를 정의한 적은 아직 없다. 馳順의 능력은 요즈음 서울시민들에게 최류탄가스에 대한 면역성을 상승시킨

것도 사실이다. 어떤 환경에 익숙해졌다. 익숙할 수가 있었다에 대한 실제적 또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가?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일들은 건축이나 도시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런 문제는 누가 규정하고 또 해내야 할 일들인가. 국립묘지에 묻힌 사람들이 했을까, 해야 할 일일까? 환경청이나 정치가들이 할 일일까? 홍수나 화재의 예방적인 조치나 연구는? 다량소비를 미덕이라고 광고하는 상인들이 다량소비에서 부산물로 나온 오물이나 공해물질에 대해 책임진 일이 있었는가? 다량생산해서 다량소비시켜서 이윤을 추구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공해물질이나 오염물질을 무해하게 처리했다든가 資源化로 循環시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돈을 벌게 해주고 해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정치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는 우리에게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마땅히 거부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이고 좋든 싫든 이런 문제는 어떤 분야가 반드시 담당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라는 사회에선 우습게 보고 있는 분야들이 거룩하게도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생활의 환경의 淸燈이니 쾌적을 연구하고 시도하고 해결해 볼려고 하고 있는 분야들이나 공기의 고마움을 잊은 듯이 당장에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인데도 별로 관심조차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 饒舌의인, 頭序없이 건축이란 무엇이나? 건축 너는 대체 무엇이나?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다. 건축이란 결국은 수와의 함수관계가 있다. 前記한 대도시의 四大脆弱點도 들었지만 교통의 정체도 취직의 어려움도 학교의 수용능력도 주거의 부족 상황도 결국은 數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 통계가 비중있게 대우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세상에 통계처럼 부정확한 것도 없는 데도 통계처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落水莊

참고가 되든지 기획이니 정책수립에 필요한 것도 없다. 아마도 이것이 통계의 魔力 아닌 魅力인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건축이나 인간생활의 환경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도시의 상황을 말하게 된다. 그렇다고 지방의 농어촌엔 인간이 살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곳에서 생산적인 상황은 더 일어나고 어려운 운송을 거쳐서 도시로(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보내져서 화폐와의 교환, 소비가 된다. 인구의 밀집도 지역과 시간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요는 어떠한 생산품이 인구밀도가 많은 곳으로 이동되게 마련이고 비록 그것이 단시간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성물질은 그리로 가고야만한다. 이것은 상업의 원리이고 소유와 이용과 교환의 원리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철도역이나 공항, 선착장이나 종교적 집회소나 많은 사람들이 集散離合하는 곳은 반드시 商行爲가 활발하여지는 곳이다. 근자에 두두러지게 나타난 예가 아마도 공항일 것이다. 세계의 어느 공항에도 수송이나 교통이란 본연의 목적 이외에 가장 상행위가 성행하는 구역이다. 편리와 친절, 봉사와 협조라는 美名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엔 그 저변에 상행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학교 교문앞의 분위기 같은 적은 일에서부터, 교환되는 소유의 행위와 소비의 행위와 폐기의 행위적 도식은 유흥지나 명산대천의 위락지는 물론이고 멀리 우리 조상들이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날을 정해놓고 풍속적으로 이루어 졌던 “장”날 역시 오늘의 이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고 거기서 또한 자신의 천직 같은 것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고 보면 오늘의

수많은 직종의 발상은 그런데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바로 이런 인간생활의 전부를 포함하는 場과 行爲를 어떻게해서 편리하고 정연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계획, 시설, 장치하느냐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창안해 내는 것이 바로 이글의 제목의 “건축! 너는 대체 무엇이냐”인 것이다.

사회는 건축가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느니 싫어한다는게 맞는 말이다. 그러나 두고 보자 未久의 인간사회에선 사회가 먼저 건축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로서 이런 말은 믿거나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건축과 인간이라는 문제는 현재도 그러하지만 정치와 인간이나 경제와 인간이란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금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지구상에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일들보다 더 근원적(몹시도 시간성을 띠, 원초적인 문제들)인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귀로 들려오기도 한다. 이때까지 우리가 건축을 공부하며 생각했던 그런 일들과는 관계없는 초연한 대자연적인 순환같은 것들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미국의 세력이나, 문화가 서서히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상상도 못할 속도의 이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들의 내용적 변화와 양식이나



백그라뎃슈行政센터 및 병원 (루이스 카할)

행사들도 그러하다. 인간들의 사상의 급변이나 소유에 대한 개념들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특히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장식에 대한 변천은 놀라울 뿐이다. 사고와 판단과 상식이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급변해 가는 세계에서 고대부터 장시간동안 유지해온 인체의 생태마저도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다. 학문, 학설, 이론들이 교정되어가는 소리, 고정되어서 불변할 것이라고 믿었던 思惟의 방향이 예측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건축이라고 해서 고대서부터의 역사적 전철을 답습만 할 순 없다. 순간적인(비시간적인, 수명이 몹시도 짧은) 건축의 양식이나 사조의 파악은 더욱 어렵게 하고 건축이란 교향악무대에 등장했던 악기들이나 악사들의 모습은 바뀌어만 간다. 이때 이 교향악을 지휘할 건축가는 新樂器의 연주자는 못될 망정 그 새로운 악기들의 성질이나 능력이나 음질 정도는 알아야만 지휘할 것이고 멋진 교향악이 울려 퍼질 터인데 聽衆이나 악사나 음악회 기획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그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잘하겠지 하는 정도의 태도이다. 이러한 예문은 세계적 음악의 거장의 연주회에 모여든 有志들이 사회적 위치나 뽐내려고 숙연히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서 고역을 치루면서 음악이 끝도 나지 않았는데 박수를 치는 그런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오직 울지도 웃지도 못할 상황은 우리 건축계에도 허다함은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이것은 확실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 너는 과연 무엇이야? 아무도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약간의 그럴싸한, 건축의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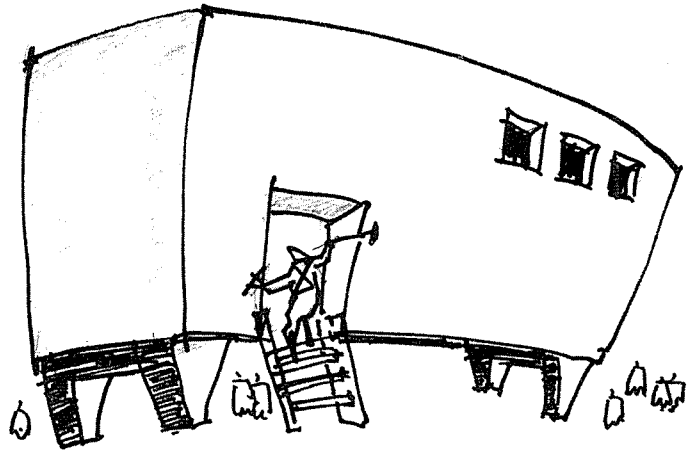
부분은 설명했다고 해서 정답이 될 수 없다. 건축가란 우직한 친구들이 목에다 힘을 주고 용변을 해도 소녀에게 조용히 사랑을 속삭이듯 정답을 할 수 없다. 정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벌써 건축은 멸망했을 것이다. 혼미에 빠졌든 정치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한두사람의 결심으로 기적적인 해결과 화합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우선 시각적으로 보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그 건물에서 사용하듯 생활해보아야 한다. 외양이 어떠한 내외부의 공간이 어찌구저찌구 해보아야 별도로가 없다. 어떤 시간동안 그속에서 생활하며 느껴 보아야 한다. 고래등 같은 고대광선은 우리 조상들이 가난한 생활을 할 때, 사회의 위계가 엄정할 때 건축에 대한 추상적이면서도 기대하고 동경했던 표현이었다. 초가삼간이니 게딱지 같은 집이니, 판자집, 하꼬방, 닭장이나 토끼장 등의 건물에 대한 각계각층의 희망이나 총망의 표현은 너무도 많다. 이것은 건축 자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크던 작던 호화롭든 빈약했든 건축은 틀림없는 건축이고 그속에서 인간들은 휴식이나 담소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자녀들 낳고 기르고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多様, 多變, 多極의 건축은 건축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면 우매한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우기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외양이나 이론이니 주장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때에 폐쇄된 동양의 작은 半島에서 그것도 두동강이 된 이 山河에서 그 많은 정보들을 입수나 이해도 하기전에 建築云謂한다는 자체가 우습기도 하거니와 하나의 정보를 읽어 보기도 전에 또

“

오직 믿는다면 자신들의 무한한 가능성일 것이요
 절대적인 태양은 믿을 것이다.
 “25時”를 쓴 게오르규는
 절대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은 일어난다고 했다.
 어느 철학자는
 “We Believe the Sun Even When it is not Shiung”
 라고 했다.
 우린 태양이란 건축은 믿는다.
 오직 그것이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건축 너 뭣고” 그것은 건축이다.
 다른 답은 있을 수 없다.

”



芦原義信 (外部空間의 美学에서)

새로운 것이 나와서 낙후나 열등의식마저 느끼게 하는
 이때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목청 높혀서 학생들에게 건축을
 설명(강의)한다. “건축이란 기능이상적인 것이다.
 현대건축이란 실제적이고 합리적이고 편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기능이란 어떤 것이고 실리나 합리란 어떤
 것이고 어떤 規準인지조차 설명할 시간조차도 없다.
 기능적이란 形이 주어진 과제에 내적조건의 총체서부터
 만에서 축출해 내려는 생각의 구체화를 의미할 것인데
 비해 인간들은 오직 경제적 상호관계에서부터 기분이나
 분위기 감동까지도 경제적으로 풀이하려고만 하며 그것을
 기능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이란 화폐로
 환산해서 수지가 맞으면 건물은 기능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사회의 모든 문제들(감정이나
 감동까지도) 경제에 관련시켜서 해석하려는
 습관성소아병인 것이다. 기능적이란 최종적으로는 形이
 예지된 것이 아니고 습목적의 思考와 목적에 관계없는
 思考와의 創造的 交流에 의해서 추출되거나 발견되어야만
 할 터인데 기능적이야 한다는 목적의 불명확성은 도리어
 수단과 방법의 풍부성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비능률적인
 결과를 낳고 비효율적이 되어 가는 것이 현대건축이라고
 생각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능적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건축은 물론이고 주택 역시 평면에서부터
 구성되어(입면에서부터 구성하는 경우도 물론있다) 평면이
 形을 주고 形자체가 내외의 공간을 구성하면서 기능을
 부여해 감은 당연한 일인데도 평면부터가 기능적이야
 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것은 動線이나 효율이나 합리를
 기능으로 혼돈한데서 온 것이 아닌가고도 싶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젊은 학생들에게 건축을
 설명한다든가 형태구성의 훈련이나 형태분석을 설명하기란
 첫아이 낳기보다도 더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 결국은
 학생들의 자각과 느낌과 예감이나 숙련에서만 체험화나
 신념화시킬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기쁜 일일까마는
 그렇지가 못하니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오직
 건축자체에 관한 이야기긴 하지만 일단 이 건축이
 사회적인 문제로 변할 때 범의 행정이다 절차와
 건축주와의 문제에서부터 현실의 시공이나 시공밀도문제에
 까지 이르러서는 이루 다 말할 수도 없다.
 건축이란 철학과 공학 사이에서 인간의 住라는 문제는
 시작되었고, 건축의 역사 역시 인류역사와 동시에
 始發되었고 인류멸망의 날까지 병행할 것은 틀림없고,
 이때 건축이란 무엇이나이니 예술이나 공학이나 따위의
 문제는 훨씬 후의 일이지 그 당시는 그런 문제는 아무런
 의미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기계문명이나 과학문명의
 대두에서부터 분업의 효율성에서든지 경제나
 소유관념에서, 職別에서 오늘날같은 골치 아픈 많은 분야가
 생겨나고, 주택이란 문제에서 시공이나 사용의 편리 등이
 건축을 공학으로 규정지어 버렸고, 근자에 와서
 서서히나마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화라는 서열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서구의 어떤 나라에선 건축을 독립된
 건축학, 건축대학으로 변천한지 이미 오래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공간이나 시간이나 표현, 의장이란
 분야가 이해되기 시작되어 왔다고 보아야겠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날 內藏山 留軍峙고개를 넘어 한참
 가면 白羊寺가 있다. 연못을 끼고 山門에 들어서면
 거대한 비석이 서있고 오직 “너 뭣고”라고 불교적인



필립 존슨 이스라엘 레오포트원자로

자기인정이나 無我의 뜻을 돌에 깎아 글을 새긴 것이 있다.

그 비석 앞에 서서 한참 생각을 했다. 불교, 종교, 자비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어느名僧이 “너 밋고”라고 경상도사투리를 새겨 놓았다. 여기서 “건축 너 밋고”와 일맥상통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때까지 긴 세월동안 불교를 대중이 알기 쉽게 설명한 명승이 있었는가? 부분적인, 알송달송한 불교의 이치야 허구 많지만 불교란 전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한 명승은 없다. 그들의 행적이나 수도의 고행이나 일화야 허다하지만 “건축 너 밋고”에 대한 대답 역시 이 비석에 쓰여진 문구와 꼭 같은 것이다. 수많은 거장들의 부분적인 철학이나 사상, 일화야 허다하지만 건축 자체를 일괄 명쾌히 설명한 건축가는 없다. 따라서 많은 후인들은 그 어떤 부분만을 건축의 전부인 양 착각도 했고 거장들의 오묘한 언어를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모방이나 연상으로써 직업으로서 무심코 연속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건축에 대한 추측이나 예감따위도 막연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근자 우리 주변에 유식하게 떠들여 대는 “아키그램”, “메다포르즘”, “포스트 모더니즘”, “레이트 모더니즘”, “세미오로지”, “메다화”, “新古典主義”에서 “하이테크”에 이르기까지 기괴할 정도의 “한타지칼리즘” 더하기 “전위건축”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건축의 이론이나 도식들은 一過用이나 一回用 상품과도 같이 市井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우기 이에 따르는 관리행정측의 아리송한 임시응변이나 형식적인 각종의 한정통제, 규제의 法이나 規定이니 습이나 條例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의 두뇌들도 혼란되어 소화시킬 수 없는 多寄復雜한 규정들 속에서 空間을 劃하고 造形을 試圖하는 建築, 과연 너는 밋고라고 소리쳐보고 싶은 심경이다. 보람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무한히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이기도 하고 고달픈 직업이기도 한 건축. 그저 묵묵히 미래를 꿈꾸며 순수히 예술이니 하면서 시도를 거듭하는 “시지프스”의 전설같이 무의미한 반복의 형벌을 받는 건축가들. 이기와 이윤에 인생을 걸고 허덕이는 건축주 후보자들 속에서 읽고 그리고 시도하는 獨高하고 孤寂한 무리들은 오늘도 清潔한 인간생활의 場을 그려본다.

미와 감각을 착각하고, 세련과 지식을 혼돈하고, 기호와 취미, 근면과 실제적 체험의 차는 어찌 되는 것이며 양심과 독선이나 과장과 위세가 인생의 전부인양, 하나밖에 없는 자기육체를 혹사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회적인 직능적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 인류원초의 무리들이 이땅에 있는 한 “建築 너는 밋고”라는 의문을 그들에게 묻지말라. 그들은 그것을 지향하면서 몸과 정신을 불사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는 않는다.

오직 믿는다면 자신들의 무한한 가능성일 것이요 절대적인 태양은 믿을 것이다. “25時”을 쓴 게오르규는 절대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은 일어난다고 했다. 어느 철학자는 “We Belive the Sun Even Wnen it is not Shiung.” 라고 했다. 우린 태양이란 건축은 믿는다. 오직 그것이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건축 너 밋고” 그것은 건축이다. 다른 답은 있을 수 없다. 《完》